

고등학생의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지지, 성장신념, 그릿,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대한 융합적 연구

하정혜¹, 한천우^{2*}

¹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²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Converged Study of Perceived Parental Autonomy Support, Growth Mindset, Grit, and Help-Seeking Behaviors Of High-School Students

Jeong-Hye Ha¹, Cheon-woo Han^{2*}

¹Lecturer, Department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 성장신념, 그릿이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41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자료는 Mplus 8.2와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전기초분석, Pearson 상관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하여 검증되었다. 그 결과 첫째,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지지는 성장신념과 그릿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장신념은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행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적 성장신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본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이론 및 실천적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고등학생, 부모의 자율성 지지, 성장신념, 그릿, 회피적 도움추구행동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tructural associates among high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al autonomy support, growth mindset, grit and avoidant help-seeking behaviors. There were 419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for this study, and their perceived parental autonomy support, growth mindset, girt and avoidant help-seeking behaviors were collected through on-line survey. Descriptive analyses, Pearson correlation analys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Bootstrapping analyses were performed to explore those relations through SPSS 25.0 and Mplus 8.2. First of all, as the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perceived parental autonomy support had positive effects on growth mindset and grit. Second, the growth mindset worked as a negative mediator for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avoidant help-seeking behaviors. The results suggested that we should consider not only relations with parents but also individual growth mindset to increase high school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lso,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High school students, Parental autonomy support, Growth mindset, Grit, Avoidant Help-seeking

*Corresponding Author : Cheon-woo Han(chan@kmu.ac.kr)

Received March 30, 2021

Accepted June 20, 2021

Revised April 23, 2021

Published June 28, 2021

1. 서론

우리는 학습상황에서 어려움이나 곤경에 빠져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하거나 때로는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종종 보곤 한다.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한 학습장면에서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은 개개인의 학습자에게 중요한 전략이 되며 도움을 얻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은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곤란함을 극복할 수 있다.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이 학습상황에서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학생은 그들의 학업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1]. 특히 청소년기는 인지발달과 함께 메타인지 능력이 발달하여 도움을 구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을 더 잘 지각하게 되지만[2], 도움추구행동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개인의 독립과 능력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하여 오히려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3]. 더욱이 최근 온라인수업으로 대표되는 교육 방법의 변화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질문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도움추구행동을 하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등의 회피적 행동을 보이기 십상이다[4,5].

도움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은 청소년은 대체로 낮은 학업적,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뒤떨어지는 성취를 보이며, 자기조절 전략과정에서 어려움을 토로할 뿐만 아니라 낮은 성취목표의 성향을 지닌다[6].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움을 회피하는 현상은 증가하고 있으며[7] 문제해결이 요구되는 학업적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과제의 미해결뿐만 아니라 학습 부진이나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8]. 학습자가 도움을 추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사나 부모, 친구 등의 사회적지지 관계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9]. 특히 청소년은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관계 요인 중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10].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과 자기주도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외적 가치를 형성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11].

최근 주목받고 있는 그릿(Grit)은 청소년의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이 있으며[12] 그들의 성취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3]. Duckworth에 의해 제안된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

과 식지 않는 열정'으로 정의되며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14]. 노력지속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실패나 역경, 좌절과 같은 어려움이 동반되는 환경의 변화에서도 노력을 지속하는 끈기와 인내이며 흥미유지는 열정의 정도로 비교적 오랜 시간에 한 가지 목표나 관심을 유지하는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15].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아동일수록 그릿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16,17].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선택한 일에 더 높은 수준의 그릿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여 적절한 목표와 행동을 선택하고 이에 책임을 지도록 격려할수록 그릿과 같은 내적 요인을 변화시켜 학습장면에서의 행동이나 태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18].

선행연구에 비추어봤을 때, 도움추구행동을 결정하는데 학생의 지능에 대한 신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 지능이나 능력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성장신념(Growth mindset)은 지능이 변화하기 어려운 고정된 것이라는 '실체이론(entity theory)'의 관점이나, 지능이 노력으로 향상될 수 있는 유연한 특성이라는 '증가이론(incremental theory)'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20]. 실체이론을 믿는 학생들은 어려운 상황에 당면했을 때 노력하지 않거나 바로 포기할 가능성이 크며, 증가이론을 믿는 학생들은 학업 수행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일 가능성이 더 크다[21]. 성장신념이 약한 학생일수록 도움추구행동을 잠재적 위협으로 판단하여 도움추구를 회피하는 경향이 높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 Shih[19]는 학생들의 고정신념이 도움추구 회피를 정적으로 예측하고, 성장신념이 도움추구 회피를 부적적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Shively와 Ryan[22]은 성장신념이 높은 학생들이 도움추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지능에 대한 신념과 도움추구행동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학습 과정에서 도움을 청할 상황과 방법을 아는 것은 핵심적인 자기조절능력이다[1].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알기 위해 교사나 친구 또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추구 행동을 하지 않거나, 발전 없이 혼자서 계속하거나,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것보다 더 이로운 행동일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아는 학생들은 한결 효과적으로 학습을 지속

해 나갈 수 있다[23]. 최근 조민규[12]의 연구에서는 구조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성장신념과 그것이 다양한 자기 주도학습 전략의 사용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도움추구행동이 자기조절학습의 한 전략임을 고려할 때, 환경적 지지 요인인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개인 내적 기본심리욕구인 성장신념과 그릿은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이론적 배경

2.1 부모의 자율성지지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부모가 자녀의 자기주도성을 격려하고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양육방식을 말한다[24].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는 자녀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고, 자율적 자기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25].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아동의 자기체계 과정의 발달, 그리고 아동기 전반에 걸쳐서 있는 수많은 영역에 대한 발달을 예측하고, 아동·청소년의 자율동기, 자아존중감, 내재적 동기화 그리고 적응과 관련이 있다[26]. 부모가 보이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성적을 높이고, 학교에서의 성취와 자아발달, 학업적 유능감에 영향을 주며, 학습 문제, 정서조절 등의 부적응을 줄이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1,27]. 이 같이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시각에서 그들의 관점을 수용하고, 선택이나 결정의 기회를 폭넓게 부여함으로써 자녀의 개인적인 흥미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의 특성을 의미한다[28].

신창환 등[29]은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높고,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표현해줄 때, 자녀의 학습동기가 높아진다고 하였고, 박선영과 홍세희[30]는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취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김지자 등[31]은 자녀가 부모의 양육 태도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 지향적인 것으로 지각할수록, 그리고 최대한 자율성을 허용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일수록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통한 학업성취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동기변수인 자기조절유형, 학업적 유능감,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 적응이나 학업성취 등의 결과변수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2]. Soenens과 Vansteenkiste[33]가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자녀의 자율성 수준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자

녀의 학업성취와 교우 관계의 자율성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및 학업성취, 효능감과 관계는 학생들의 자기결정동기 유형인 자율성과 통제성의 조절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란영[34]은 부모가 자율성을 지지할수록 자녀는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유능감을 느끼고 적절한 사회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자녀의 사회기술과 관계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도움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소수이다.

2.2 성장신념

성장신념(Growth mindset)은 증진이론(Incremental theory)에 기초한 개념으로 지능이나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신념 체계이고, 고정신념(Fixed mindset)은 지능이나 능력을 고정된 내적 실체를 가진 것으로 노력을 기울여도 바꿀 수 없다고 믿는 신념이다[20]. 개개인이 가진 성장신념 수준의 차이에 따라 성취기준, 목표지향, 귀인, 과제 난이도, 도전과 좌절, 노력에 대한 생각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35].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이러한 고정신념과 성장신념의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데, 실제 연구를 통해서도 자신의 능력에 대해 고정신념을 가진 학생들이 성장신념을 지닌 학생들에 비하여 학업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6]. 즉, 고정신념의 성향이 높은 학생의 경우, 학습장면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지적 능력이나 낮은 학업능력을 그 실패의 원인으로 귀인하여 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높은 성장신념을 가진 학생은 자기조절학습능력 과 학업적 동기, 창의성의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목표지향성이나 탐구열, 호기심도 높게 나타났다[37]. 이들은 도전적인 과제에 당면했을 때, 그 상황을 긍정적인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한층 더 창의적이며 효율적인 전략을 사용한다. 나아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역경이나 장애물에도 높은 탄력성을 보여주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패나 부정적인 경험을 비교적 잘 헤쳐 나가는 특징을 보여준다[20]. 성장신념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노력이나 연습, 학습전략 등으로 귀인 하는 성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노력하는 행위 자체를 즐거움으로 느끼게 된다

[38]. 구체적으로, 고정신념을 가진 학생들은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이 자신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 여길 수 있다. 반면 성장신념을 가진 학생들은 도움추구를 자신의 능력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술 전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20].

2.3 그릿

Duckworth[14]에 의해 제안된 그릿(Grit)은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 등의 비인지적 요소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한 열정과 끈기'로 정의될 수 있으며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14]. 하위요인 중 흥미유지는 열정의 정도를 의미하며 비교적 장기간 한 가지 목표나 관심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39], 노력지속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실패나 어려움, 침체와 같은 내·외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지속하는 인내와 끈기로 설명할 수 있다[15]. 그릿은 다양한 분야의 장기적인 결과물과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비인지적 요인으로, 그릿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기통제력, 만족지연능력, 자제력 등이 높으며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외부의 피드백 없이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고 보고되었다. 반면 그릿이 낮은 사람은 목표 달성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오래가지 못하고 자주 바뀌며 목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또한 적게 하였다. 그릿은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과 군대에서도 적응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23,37]. 높은 그릿을 가진 학생들은 학습상황에서 자기조절력을 발휘하고, 학업적 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36]. 또한, 그릿은 학교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었으며[40] 회복탄력성, 자아정체성, 만족도, 직업유지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긍정적 요소들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41]. 그릿은 자기조절학습능력, 수행접근목표, 숙달목표, 연습과 성취,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창의적 성향 등을 정적으로 예측함을 알 수 있다[15,39,42]. 그릿은 성장 가능하며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그릿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의 성취를 도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13,14].

2.4 회피적 도움추구행동

도움추구행동(help-seeking behavior)은 학문적 성취를 달성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을 처리하고, 지식과 정보, 기술의 부족한 부분을 교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설계

및 계획된 행동이다[43]. 반면 회피적 도움추구행동(avoidant help-seeking)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그냥 넘겨버리거나 도움요청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6]. 많은 경우에 학생들은 도움추구행동이 학습 과정이나 과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교사나 부모, 또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회피하는 경향을 나타낸다[1,2].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도움을 요청하는 데 따른 손해 가능성을 강조해 왔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무능함을 지각함으로써 자존심이 위협을 받는다거나, 질문하는 것을 비난하는 사회, 문화적 규범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44]. 더욱이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줄어들면서 도움회피 행동이 더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5,45].

Ryan 등[6]은 학업적 능력에 대한 걱정이 학생들의 도움추구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몇몇 학생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학업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인다고 믿는데, 이러한 믿음이 높은 학생일수록 도움추구행동을 더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6]. 그러나 회피적 행동보다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이 효율적인 학습전략으로 확인되었고, 도움추구행동의 적응력을 통해 학생들은 더 많은 것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7]. 학생들은 학습의 지속성을 위해 때때로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도움추구행동은 중요한 학업적 전략이 되며, 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도움이 필요함을 지각하고, 도움추구행동을 결정하여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적합한 사람이나 적절한 자료에 접근해야 한다[6,47].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지지, 성장신념, 그릿, 회피적 도움추구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청소년은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10] 특히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성장신념과 함께 작용하여 학습자의 인내와 끈기, 즉 그릿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17]. 예컨대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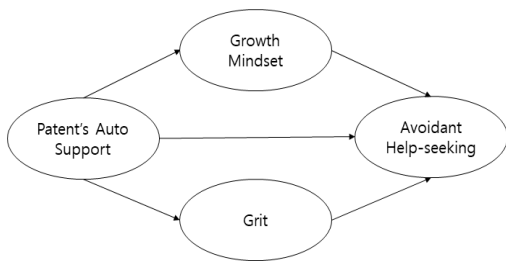


Fig. 1. Hypothesized Research Model

본심리욕구는 충족되며 이는 자녀들로 하여금 높은 성장신념을 가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그릿을 증진시킬 수 있다. 부모가 자율성을 지지할수록 자녀는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하고 적절한 사회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17]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자녀의 사회기술과 관계가 있고 이는 자녀의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1.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지지는 성장신념, 그릿,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장신념이 높은 학습자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인내하는 힘이 강하며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과제에도 쉽게 도전하는 성향을 보인다 [45]. 또한,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창의성, 학습동기의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목표지향성이나 학구열, 호기심도 높게 나타난다[48]. Shively 등[22]은 성장신념이 높은 학생들이 도움추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Shih[19]는 학생들의 고정신념이 도움추구 회피를 정적으로 예측하고, 성장신념이 도움추구 회피를 부적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릿은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여러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릿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학습 과정에서 자기조절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고[37] 자기효능감, 수행접근목표, 자아존중감, 학업적 유능감 등을 정적으로 예측한다[15,42].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선택한 일에 더 높은 수준의 그릿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여 적절한 목표와 행동을 선택하고 이에 책임을 지도록 격려할수록 성장신념이나 그릿과 같은 내적 요인을 변화시켜 학습장면에서의 행동이나 태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14,18].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2. 성장신념은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H3. 그릿은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서울특별시 소재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하고자 먼저 담당 교사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였다. 학생들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비밀보장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동의를 한 514명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받았다. 설문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였으며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432명 중 응답에 불성실한 반응을 보인 참가자를 제외하고 418명의 설문 응답지를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3 자료 분석 도구

3.3.1 부모의 자율성지지

Skinner 등[49]이 동기촉진적 관점에서 제작한 청소년용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김태명과 이은주[50]가 우리말로 번역한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자율성지지 4문항(예,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으며, Cronbach α 값은 .91로 나타났다.

3.3.2 성장신념

성장신념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에 대한 변화 정도를 믿는 것으로 Dweck[20]과 Park[51]이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성장신념 4문항(예,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내 능력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다.)과 고정신념 4문항(예, 나는 열심히 노력해도 능력은 쉽게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으며, Cronbach α 값은 .91로 나타났다.

3.3.3 그릿

그릿은 Duckworth와 Quinn[52]이 고안한 Grit-S를 Kim과 Hwang[42]이 수정, 변안한 흥미유지 4문항(예, 나는 어떤 생각이나 일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는다.)과 노력지속 4문항(예, 나는 시작한 일은 뭐든지 끝장을 본다.)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으며, Cronbach α 값은 .72로 나타났다.

3.3.4 회피적 도움추구행동

도움추구행동은 Karabenick과 Knapp[47]가 개발하고 Pajares 등[53]에 의해 수정된 회피적 도움추구 4문항(예, 나는 수업에서 배운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으며, Cronbach α 값은 .89로 나타났다.

3.4 자료분석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 성장신념, 그림이 그들의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끼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Mplus 8.2 프로그램을 통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수행하였다. 이에 앞서,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찰변인들의 기초통계량을 검토하고 상관분석을 통하여 변인 간의 관련성이 조사되었으며, 변인들이 정규분포 조건을 만족하는지는 확인하였다. 이어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잠재 변인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184명(44%)이고, 여학생이 235명(56%)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학년은 2학년 학생이 175명(4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학년 학생이 127명(30%), 3학년 학생이 117명(28%) 순으로 나타났다.

4.2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한 잠재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일반적인 변인들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모든 변인에 있어 두 지수의 절대값이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나기에, 본 연구의 데이터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겠다[54]. 또한, 응답자의 회피적 도움 요청 성향은 다른 모든 변인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변인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for research variables

Research variables	1	2	3	4
1. Grit	-	.19**	.21**	-.14**
2. Growth mindset		-	.25**	-.25**
3. Patent's auto support			-	-.14**
4. Avoidant help-seeking				-
M	2.84	4.06	4.15	2.13
SD	.63	.75	.85	.91
Kurtosis	.02	.29	.08	.22
Skewness	.10	.79	.83	.77

** $p < .01$

4.3 연구모형의 검증과 수정

본 연구는 2단계의 구조방정식 방법을 채택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으며, 그 첫 번째 단계는 잠재 요인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항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이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분석한 결과, CFI=.86, TLI=.84, RMSEA=.08, SRMR=.07로 나타났다. RMSEA와 SRMR은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 지수를 보였으나, CFI와 TLI의 낮은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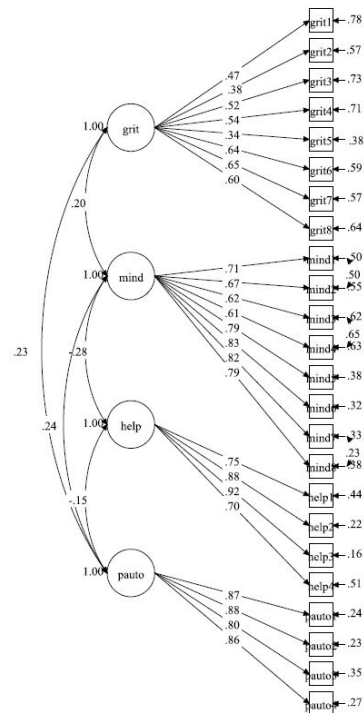


Fig. 2. Final CFA model with standardization coefficient

지수를 보여 모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모형 수정은 LM(Lagrange Multiplier modification test; Chou와 Bentler[55]) 테스트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성장신념 요인 내의 측정변수 간(문항 4와 3, 문항 8과 7, 문항 2와 1)의 오차 범위 상관을 허용하여 Fig. 2와 같이 모형을 수정하였다. 이때, 각 잠재 요인에 대한 모든 표준화 계수 부하량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수정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소폭 상승하여, CFI=.90, TLI=.90, RMSEA=.07, SRMR=.07로 최종 확인되었으며, 괜찮은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앞서 기술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Fig. 2의 수정된 측정모형에 인과관계를 추가하여 최종으로 검증된 연구 모형은 Fig. 3과 같다.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CFI=.90, TLI=.90, RMSEA=.07, SRMR=.07로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본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최종모형의 경로별 표준화 계수를 비롯하여 오차와 비표준화계수는 Table 3에 표기하였다.

Table 2. Summary of the model-fit statistics

Model	χ^2	df	CFI	TLI	RMSEA	SRMR
Initial CFA	1106.30	246	.86	.84	.08	.07
Modified CFA	810.84	243	.90	.90	.07	.07
Structured model	787.34	242	.90	.90	.07	.07
Final model	787.34	242	.90	.90	.07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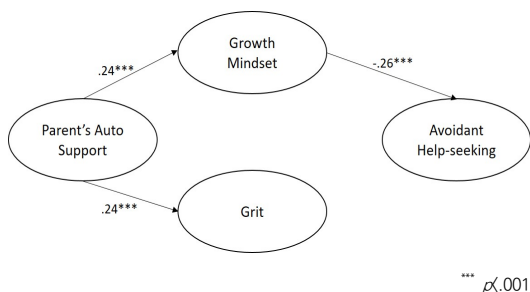


Fig. 3. Final structural equation model

Table 3. Path coefficients of structural model

Path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SD
Auto --> Mindset	.34	.24	.06
Auto --> Grit	.32	.24	.07
Mindset --> Help	-.33	-.26	.06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성장신념을 매개하여 고등학생의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와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5,000개의 표본을 재추출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56]. 매개효과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검증한 결과 하한값이 -.18, 상한값이 -.03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신뢰구간 안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녀의 성장신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고 있음을 Table 4로 제시하였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 정도가 그들의 도움추구 회피 성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않지만, 성장신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침을 의미한다.

Table 4. Test of indirect effect

Path	β	SE	95% CI	
			lwr	upr
Parent's auto support → Growth mindset → Avoidant help-seeking	-.07	.02	-.18	-.03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 성장신념, 그릿, 회피적 도움추구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는 성장신념과 그릿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지지는 고등학생의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장신념은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릿은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지지는 성장신념과 그릿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아동일수록 그릿 수준이 높아지고 [16,17], 부모의 자율성지지를 높게 지각한 자녀일수록 성장신념이 높아진다는[57]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고등학생의

성장신념과 그릿 수준을 높이는 주요 변인임을 확인하고, 부모의 자율성지지를 강화하고 부모 자녀 간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지지는 고등학생의 회피적 도움추구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도움추구 회피행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도움추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부모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9]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회피적 도움추구행동 간의 학습자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환경적 특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고등학생의 성장신념은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끼쳤다. 즉, 고등학생의 성장신념이 높을수록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부정적 학업태도는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지능이나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 [20]고 보는 성장신념이 높은 학습자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추구를 하는 것은 발전 없이 혼자서 계속하거나, 과제를 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2] 필요할 때 도움을 추구하는 방법과 기술을 아는 학생들은 훨씬 적극적으로 학습을 지속하거나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그릿은 고등학생의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실패나 역경과 같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지속하는 끈기와 인내로 나타나는 그릿 [15]이 고등학생의 내적인 요인을 변화시켜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유의한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릿이 높은 사람은 자기통제력, 자제력 등이 높고, 외부의 피드백 없이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연구결과 [23, 37]를 일부 뒷받침하는 것으로 그릿 수준이 높은 고등학생이 스스로 학업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향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움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 요인으로 부모의 자율성지지뿐만 아니라 동료지지, 교사지지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학생들이 학업적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지지 자원과 환경을 설계하는데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성장신념이 도움추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습자의 자기조절

학습의 주요 전략으로서 도움추구행동을 높이기 위해 성장신념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성장신념은 훈련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58], 부모의 자율성지지에 대한 지각도 훈련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48] 향후 실험연구를 통해 성장신념과 부모의 자율성지지에 대한 긍정적 지각 훈련이 도움추구행동을 높일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선행연구와 그릿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등학생의 그릿 수준이 회피적 도움요청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는 한정된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표집조사했으므로 연구대상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고, 성별이나 학년(연령)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약이 있다. 또한, 그릿의 영향을 받는 학업의 중요성 비중이 점점 커지는 시기가 중학교 때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중학생들에게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는 어떠한 점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하겠다.

REFERENCES

- [1] R. S. Newman. (1991). *Goals and self-regulated learning: What motivate children to seek academic help?* In M. L. Maehr & P. R. Pintrich (Eds.), *Advances in motivation and achievement: Goals and self-regulatory processes*. Greenwich, CT: JAI.
- [2] H. J. Lee. (2007). Students' Self Efficacy, Classroom Contextual Characteristics and Help-avoidance Attitudes on Academic Help-seek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5), 209-220.
- [3] E. S. Jung & J. H. Ha. (2017). The Comparison of Academic Contingencies of Self-Worth and Self-Esteem on Academic Help-Seeking and Academic Conceal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Trait Anxiety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2), 639-650.
- [4] Y. C. Ra. (2021.01.27.). *Corona era, It's hard for me to class alone online*. Asiaeconomic.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12710453852338>
- [5] M. Y. Kim. (2020). The effect of online learning interactivity and the risk perception of COVID-19 on learning behavioral intention and learning persistence: Using UTAUT theory.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29(8), 59-76. DOI : 10.24992/KJHT.2020.12.29.08.59.
- [6] A. M. Ryan, P. R. Pintrich & C. Midgley. (2001). Avoiding seeking help in the classroom: Who and why?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3(2), 93-114.

- [7] A. M. Ryan & C. Midgley. (1998). *Changes in students' help seeking across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Paper presented at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nnual meeting.
- [8] W. K. Noh, H. W. Lee, S. H. Oh & H. Y. Kim. (2017).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Diagnostic Questionnaire Assessing Causes of Underachievement. *Korean Education Inquiry, 35(3)*, 23-47.
- [9] J. C. Choung & N. M. Yang. (2010). The Relations among Stigma, Self-Esteem, and 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3)*, 631-652.
- [10] C. E. Ross & B. A. Broh. (2000). The roles of self-esteem and the sense of personal control in the academic achievement process. *Sociology of Education, 73(4)*, 270-284.
- [11] M. K. Kim.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Ego Identity o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Life Goal of Adolescents. *Journal of Parent Education, 9(4)*, 21-38.
- [12] M. K. Cho. (2020). A Structural Analysis Between Mindset, Grit,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Children according to Attachment Typ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4(4)*, 47-59.
- [13] M. S. Kim, S. H. Lee, S. H. Paik & Y. S. Choi. 2015). The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students' grit scores and their differences across sex and grad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5)*, 297-322.
- [14] A. Duckworth. (2016). *Grit: Passion, perseverance and the science of success*. New York : Random House.
- [15] Y. R. Yoo, J. W. Yoo & H. K. Park. (2015). A Relationship among Grit, Objective Reasoning, and Self-Regulated Learning Efficacy of High-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10)*, 367-385.
- [16] T. Mandelbaum.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grit. Doctoral dissertation. Bryn Mawr College, Bryn Mawr.
- [17] S. H. Lee & J. E. Choi. (2019). A Structural Analysis on School-Aged Children's GRIT, Growth Mindset,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7(3)*, 155-168.
DOI : 10.7466/JKHMA.2019.37.3.155
- [18] Y. M. Kim.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Styles and Psychological Well : Being mediated by Grit and Satisfaction of Psychological Basic Needs in Early Adulthood*. Doctoral dissertation. Ewha University, Seoul.
- [19] S. S. Shih. (2007). The role of motivational characteristics in Taiwanese sixth graders' avoidance of help seeking in the classroom.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07(5)*, 473-495.
- [20] C. S. Dweck. (2006). *Mindset: The new psychology of success*. New York : Random House.
- [21] C. Dweck & Leggett. E. (1988).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95(2)*, 256-273.
- [22] R. L. Shively & C. S. Ryan. (2013). Longitudinal changes in college math students'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16(2)*, 241-256.
- [23] S. R. Lee & Y. W. Son. (2013). What are the strong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 Deliberate practice and Grit.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0(3)*, 349-366.
- [24] R. M. Ryan, E. L. Deci, W. S. Grolnick & J. G. La Guardia. (2006). *The significance of autonomy and autonomy support in psychologica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Hoboken : John Wiley.
- [25] W. S. Grolnick, R. M. Ryan & E. L. Deci. (1991). Inner resources for school achievement: Motivational mediator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4)*, 508-517.
- [26] W. S. Grolnick. (2009). The role of parents in facilitating autonomous self-regulation for education. *Theory and Research in Education, 7(2)*, 164-173.
DOI : 10.1177/1477878509104321
- [27] J. P. Allen, S. T. Hauser, K. L. Bell & T. G. O'connor. (1994). Longitudinal Assessment of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Family Interactions as Predictors of Adolescent Ego Development and Self-Esteem. *Child Development, 65(1)*, 179-194.
- [28] W. S. Grolnick. (2002). *The psychology of parental control: How well-meant parenting backfire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s., Mahwa, NJ.
- [29] C. H. Shin, H. Y. Lee, C. B. Kim & J. H. Heo. (2018). Effect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Learning Motiv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9(2)*, 155-171.
- [30] S. Y. Park & S. H. Hong. (2013).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chievement Motivation and Parents' Autonomous Attitud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4)*, 1-21.
- [31] C. J. Kim, I. A. Kim & H. M. An. (2000).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s parenting style and their self- directed learning reading readiness: The case of Korean Primary 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12(1)*, 177-209.
- [32] A. Y. Kim. (2002). Validation of taxonomy of academic Motivation based on the self- determination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4)*, 169-187.
- [33] B. Soenens & M. Vansteenkiste. (2005). Antecedents and outcomes of self-determination in three life domains: The role of parents' and teachers' autonomy suppor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6)*, 589-604.
- [34] R. Y. Jeon. (2020). The effects of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structure on child s cooperation with child s grit as a mediator.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1)*, 117-139.

- [35] J. J. Ryu & H. J. Lim. (2018). Moderating Effects of Goal Types in the Relationship among Growth Mindset, Self-Determination, and Gri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2(3), 397-419.
- [36] J. L. Lee & D. H. Kwon. (2016).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Locus of Control, Mindset, Grit,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11), 245-264.
- [37]—A. L. Duckworth, T. A. Kirby, E. Tsukayama, H. Berstein & K. A. Ericsson. (2011). Deliberate practice spells success why grittier competitors triumph at the National Spelling Be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2(2), 174-181.
- [38] K. L. McCutchen, M. H. Jones, K. J. Carbonneau & C. E. Mueller. (2016). Mindset and standardized testing over time.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 208-213.
- [39] H. J. Lim. (2017).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Grit, Creative Disposition, and Creative Thinking. *Korean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13(2), 45-65.
- [40] H. J. Lim, H. S. Ha & M. H. Hyang. (2016). The Relationship among Grit, Self-Efficacy, Achievement Goal, and Academic Self-Regulat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7(3), 43-65.
- [41] M. R. Han & G. S. Kim. (2018). The Effect of Grit and Resilienc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on Teacher Self-Efficacy.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7(3), 411-427.
- [42] H. M. Kim & M. H. Hwang. (2015). Validation of the Korean Grit Scale for Children. *The Journal of Education*, 35(3), 63-74.
- [43] S. A. Karabenick. (1987). *Computer conferencing: Its impact on academic help-seeking*. Paper presented at the 2nd Symposium on Computer Conferencing and Allied Technologies, Guelph, Ontario, Canada.
- [44] P. A. McMullen & A. E. Gross. (1983). Sex differences, sex roles, and health-related help-seeking. In B. DePaulo, A. Nadler, & J. Fisher(Eds.), *New directions in helping*, 2, 233-263.
- [45] Y. S. Lee, B. C. Shin & Y. S. Jung. (2021). A Study of the Paradoxes in School Education caused by Covid 19.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9(1), 131-165.
- [46] S. N. Gall. (1985). Help-seeking behavior in learning.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12(1), 55-90.
- [47] S. A. Karabenick & J. R. Knapp. (1991). Relationship of academic help seeking to the use of learning strategies and other instrumental achievement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2), 221-230.
- [48] E. Park & K. H. Kim. (2015). Development of the Learning Goal Orientation Promotion Program and it's Efficacy.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6(1), 227-250.
- [49] E. Skinner, S. Johnson & T. Snyder. (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DOI : 10.1207/s15327922par0502_3
- [50] T. M. Kim & U. J. Lee. (2017).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PSCQ_K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3), 313-333.
- [51] J. S. Park. (2017). *The Effects of Attributional Feedback on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Mindset, Grit and Self-Control*.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 [52] A. L. Duckworth & P. D. Quinn.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 [53] F. Pajares, Y. F. Cheong & P. Oberman. (2004). Psychometric Analysis of Computer Science Help-Seeking Scal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4(3), 496-513.
- [54] T. Kline.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Thousand Oaks : Sage.
- [55] C. P. Chou & P. M. Bentler. (1990). Model modification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A comparison among likelihood ratio, Lagrange multiplier, and Wald test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 115-136.
- [56] K. J. Preacher, D. D. Rucker & A. F. Hayes.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57] D. H. An & J. H. Yoo. (2008). Facilitating factors on one's beliefs about intelligence: An examination of elementary, junior-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6(1), 173-202.
- [58] B. M. Kim. (2015). *Effect of Mindset Change Program on Mindset, Academic Self-efficacy and Goal Orient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하 정 혜(Joeng-Hye Ha)

[정회원]



교육

- 2011년 8월 :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6년 8월 :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 관심분야 : 교육심리, 학습동기, 부모

· E-Mail : rabb406@naver.com

한 천 우(Cheon-woo Han)

[정회원]



- 2007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심리전공(문학석사)
- 2014년 5월 :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교육심리전공(철학박사)
- 2014년 8월 ~ 2017년 7월 :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교육심리전공 연구교수

- 2017년 9월 ~ 2019년 7월 : The University of Texas at Tyler 교육심리전공 교수
- 2019년 9월 ~ 현재 :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학습동기, 성취목표, 성장신념, 그릿
- E-Mail : chan@kmu.ac.kr